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눈길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2013년 프로그램 발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 부설 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은) 2013년 어린이생태학교, 자따따(자따따라 마음따라) 1박2일,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제역사 문화탐방 총 10차례에 걸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총 7차례에 걸쳐 1박 2일 동안 어린이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먼저 3월 23~24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시작한 행사에는 어린이 45명, 지도자 1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어 4월 27~28일에는 남원 실상사, 5월 25~26일에는 영암 도갑사, 6월 22~23일에는 순천 송광사, 9월 7~8일에는 부안 내소사, 9월 28~29일에는 강진 백련사, 10월 26~27일에는 완도 신흥사에서 어린이 생태학교와 자따따 1박2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에코트레킹, 숲 탐방, 빙그릇운동, 건강찬 먹음거리 강의 및 실험, 통일 바로알기, 공동체놀이(전래놀이), 108배 절 명상, 문화재 탐방, 각종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생태학교 및 청소년 캠프가 진행된다. 8월 2~4일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어린이 여름생태학교, 8월 9~11

일 지리산 달궁야영장에서는 제2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돼 지리산을 온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호연지기의 장을 키워간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히말라야왕국 네팔로 제5회 선제역사문화탐방이 눈길을 끈다. 선제역사문화탐방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범일 스님은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 되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등 10개 행사 히말라야 문화탐방 등 해외 체험도

자'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울곧게 나아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자연과 숲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불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인수연 사무처장은 “아이들에게 산중 사찰에서의 소중한 체험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으며, 자연과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3월 23일 금산사에서 진행된 자따따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참석하고 있는 아이들

자따따 및 어린이 생태학교 일정

날 짜	장 소	내 용
4월 27~28	남원 실상사	제8회 자따따 1박2일
5월 25~26	영암 도갑사	제11회 어린이생태학교
6월 22~23	순천 송광사	제9회 자따따 1박2일
8월 2~4일	구례 화엄사	어린이여름생태학교
8월 9~11일	지리산 달궁야영장	제2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
9월 7~8	부안 내소사	제12회 어린이생태학교
9월 28~29	강진 백련사	제10회 자따따 1박2일
10월 26~27	완도 신흥사	제11회 자따따 1박2일
겨울방학기간		제5회 선제역사문화탐방

지역발전에 불교계도 동참 한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고창 선운사(주지 범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이 고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3월 25일과 28일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권익증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방을 위한 노인교육과 캠페인 등이 진행되며 복지관 이용자 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전담위원단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음면 학원관광광장에서 열리는 청보리밭 축제에 고창의 차(茶)문화를 알리고 시음할 수 있는 다도 체험장을 마련하고, '청보리밭 도깨비 이야기길' 주제로 한 인형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난타, 생활체조, 합창, 태극권 공연 등 지역 아동과 성인, 어르신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관장 도완 스님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역을 알리는 축제와 함께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노인 권익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인권익증진사업은 사기, 자살, 학대 등 지역 어르신들의 인권 및 권리상실 예

“이 순간 온전히 즐기며 신심있게 살아야”

정목 스님, 중심사 명사초청법회서 호남불자들에게 당부

“이제 호남불자들은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할 때입니다”

2012년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중심사 명사초청법회’가 3월 26일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을 첫 법사로 모시고 2013년 강의를 시작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중심사 명사초청법회는 출·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다.

정목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몸은 현재에 살면서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있다면 행복하기 힘들다”며, “지금 가족과 세상에 살고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서 살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심사 신임 주지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계절의 봄은 이미 온 것 같다.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통해 신도



정목 스님

들이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목 스님에 이어 4월 24일 범일 스님(조계종 교육부장), 5월 24일 강운태 광주지장, 6월 23일 서광 스님(미국 서운사 주지), 7월 22일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 8월 30일 진오 스님(구미 대운사 주지), 9월 28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0월 19일 방승인 김해옥 씨, 11월 각목 스님(조기불전 연구원) 등이 차례로 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수산스님 열반 1주기 추모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을 지낸 수산 스님 열반 1주기 추모제가 봉행됐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3월 26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지난해 3월 7일 입적한 수산 스님 1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수좌 지선 스님을 비롯해 前 중앙총회의장 보선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등 문도 및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이 계실 때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부끄럽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백양사가 하루 빨리 안정되고, 한 국불교의 큰 수행도량으로서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인 스님도 인사말에서 “스님이 지금도 계신 것 같은데 벌써 1주기가 됐다”며 “앞으로 스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각사 지장보살, 명부시왕 점안식

도심 속 포교도량 광주 원각사(주지 도요)는 3월 22일 원각사 지장보살과 10대 명부시왕, 지장탱화, 관세음보살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고 스님(원각사 회주), 현조 스님(前 송광사 유나), 도요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조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많은 법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과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원각사는 도심에 있는 좋은 도량으로, 많은 신도들이 늘 와서 기도하고 불교신 행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요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의 수회 동참으로 불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며 “지장보살과 명부시왕을 통해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한 지장보살과 좌부보처인 도명존자, 무독귀왕을 비롯해 명부시왕(진광대왕, 조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그리고 지장보살 후불행화는 대웅전 맞은편에 위치한 지장전에 봉안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중학교 축구부 창단

김제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가 축구부를 창단했다.

금산중학교 축구부는 3월 29일 금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창단식은 축구계 인사들과 학생, 학부모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U-15팀의 일환으로 창단된 금산중 축구부는 전북현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팀의 지원으로 이미 18명의 선수가 훈련과 주말리그를 소화하고 있다.

감독에는 전북현대에서 선수와 U-12 코치, 감독 등 프로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두루 경험한 안재석 감독이 선임됐다. 또 전북현대에서 프로생활을 거친 올림픽 대표출신 안대현 코치와 유재석 GK코치가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금산중학교 조영석 교장은 “축구부를



김제 금산중학교 축구부 창단식

창단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전념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단 소감을 밝혔다.

이철근 전북현대 단장은 “앞으로 이 선수들이 전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의 유소년 시스템의 벤치마킹과 지도자 초청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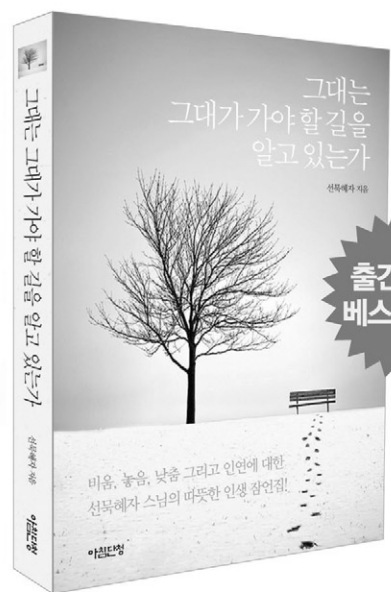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의: 02-466-1207 아침단청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

★ 독자들의 찬사 ★ 이 책은 고요하다. 그리 어려운 문장도 없고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다. 참으로 편안하다. _ji**x00 | 우리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_ksy**30 | 책을 읽고 난 뒤 저절로 반성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힘들 때마다 펼쳐보면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_we**1 |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진정한 큰스님의 글이다. _js**em2002 | 진정한 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감동을 주는 책! _dk**14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전국서점 절찬리 판매중

선목해자 지음 | 240쪽 | 값 14,000원

우리는 모두 10억 통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누구나 10억 통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 다.

다만 그 비밀번호를 모를 뿐. 그 비밀번호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도선사 주지 선목해자 스님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를 7년째 이끌고 있으며, 농촌사랑 홍보대사로 우리농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법회 때마다 무지개가 뜬다고 해서 '무지개 스님'이라고도 불린다.